



제 2150호 2020. 8. 16. 연중 제20주일

제1독서 : 이사야서 56,1-7

제2독서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1,13-15.29-32

복 음 : 마태오 복음서 15,21-28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중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서예희 발레리아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가장 알맞을 때

찬미예수님!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느린 것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빠른 것이 익숙한 거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오늘 복음은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신앙은 빠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13지구 성현동 성당
박재득 테오도로 신부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돼요. 가나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전쟁을 겪고 미처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남의 나라 사람으로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하여 서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에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오셨다며 거절을 하고, 자녀들의 빵을 강아지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굴욕적인 비유를 들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청하면서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말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셔서 그 딸을 고쳐주세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청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청해서 은총을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맞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친구들도 빠른 게 익숙해서 금방 들어주시는 하느님만 바라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을 때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림_ 이서진 엘리사벳

작은마음 40주년 잔치 참가 신청서

작품제목				
이름		세례명		학년 / 나이
본당		전화번호		참가부문
주소				

24



*퍼즐 조각을 모아서 붙이면
하나의 예쁜 그림이 완성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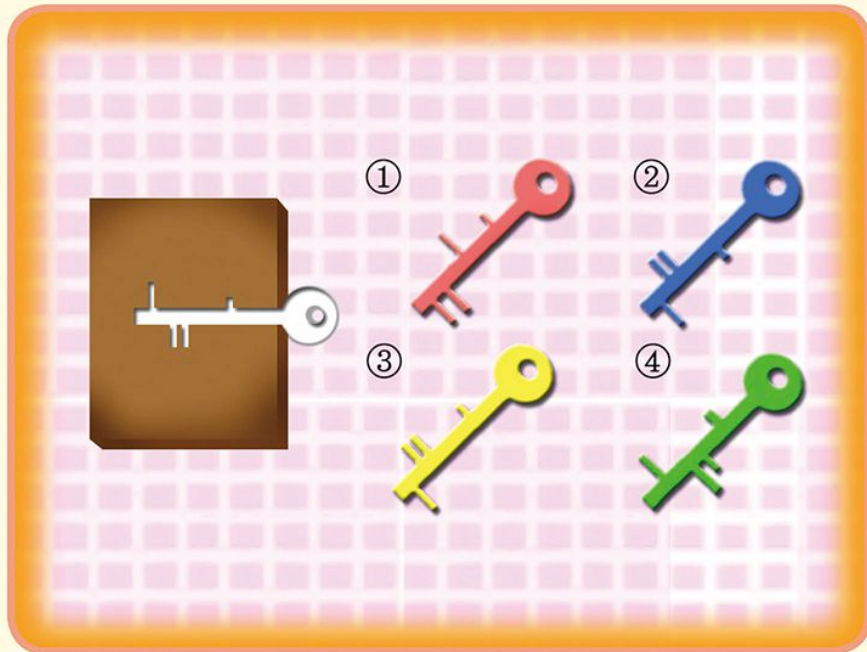
작품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및 수상작품 게시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작품 뒷면에 참가 신청서를 붙여 '작은마음' 앞으로 보내주세요. 참가 신청서는 복사 가능합니다.

도란도란
생각공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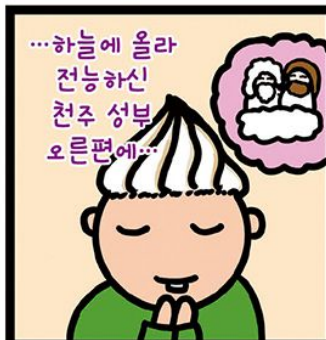
엘리사가 자객들이 오는 것을 미리 말하다 (열왕기 하권 6,32-33)

임금이 자기 주변의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오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살인자가 내 목을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문을 단단히 걸어야 합니다.”

* 열왕기 하권 6장 32-33절을 읽고,
문을 잠글 수 있게 꼭 맞는 열쇠를 찾아보세요.



그림_이지영 카타리나



◆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집회 24,19) ◆

작은마음 40주년 잔치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작은마음'이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마음'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작은마음과 함께했었던 추억을 담아 보내주세요.

- ★ 주제: 작은마음과 함께한 나의 이야기
- ★ 대상: 작은마음을 아는 모든 분들
- ★ 참가부분
 - 글 : 산문, 창작동화, 감상문(원고지8매 내외), 동시(2편)
 - 그림 : 8절 도화지크기(형식과 재료는 자유)
 - 사진 : 이미지 파일 2매(사진의 내용도 같이 보내주세요.)
 - 영상 : 15~90초의 영상 파일
- ★ 마감: 2020년 9월 15일(화) 오후 6시 도착분까지
- ★ 발표: 2020년 10월 18일자 '작은마음'주보
- ★ 시상: 40작품을 선정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 오프라인 접수는 원고와 함께 청소년국 초등부 홈페이지
(www.chota.or.kr) 또는 '작은마음'에 있는 참가신청서를
작품과 함께 보내주세요.
참가신청서가 없으면 무효처리됩니다.
- ♥ 온라인 접수는 littlemm1@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 ♥ 메일 내용에 참가신청서의 정보를 반드시 보내주세요.
- ♥ 보내주신 작품의 원본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문의 (초등부: 02-763-7966)

작품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및 수상작품 게시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오늘의 미사

- ★ 화답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 알렐루야.
- ★ 영성채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